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5·18의 의인 광준을 변호사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5월 40주년을 맞는 5·18의거를 회고하면서 썼던, 잊혀지지 않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난날 저승으로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벌써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여생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울컥 솟는 비통함을 참지 못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지요. 그런 지 6개월여 만에 하느님은 그를 불러갔습니다.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서울에서 광주로 달려와 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임종을 지켜보았노라는 로마노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는 분명코 천당으로 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말하시기를, “그렇게 통증을 괴로워하던 환자가, 운명하기 며칠 전부터는 모든 통증이 사라진 듯 참으로 안온하고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지더니, 슬그머니 숨을 거두면서 운명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광 변호사는 판사 시절부터 천주교에 귀의하여 구약을 수없이 읽었고,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연구하여 생과 사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서신 지 오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의인은 역시 하느님도 알아보고 성령이 임하여 곁고 온전하게 이성을 떠날 수 있었

곡(哭), 의인 광 변호사!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 변호사는 80년 5·18 당시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항쟁의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살인마들의 무자비한 학살 만행에 극한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시 폭동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피신 중이던 필자가 광주를 탈출하여 서울로 도피할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고, 탈출로를 찾아내 무사히 피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광 변호사였습니다. 수배자를 숨겨 주면 법인 은닉죄로 가혹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문제가 되면 판사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지 않느냐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죽을 고비를 맞은 필자를 살려준 의인이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배였던 그는 이제 가고 없습니다. 뒷날 필자가 검거되어 상무대 영창에 갇히자 가족들의 면회도 불허되던 때, 그는 판사의 신분을 이용해 법무관들을 통해 여러 차례 면회를 왔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 속에서 했던 일이지만, 사실이 탄로되면 결코 무사히 죽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의인만이 지나는 용기를 지냈던 법입니다.

광주 의거의 참된 의미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무참히 학살되고, 무수히 구타당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광주 시민은 모두가 분노에 치를 떨며 용기를 냈습니다. 공분(公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녀노소가 현열의 대열에 서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먹여 주던 아주머니들의 대열 역시 모두 분노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분노에서 용기를 낸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던 높은 신분이나 많이 가진 사람

들은 자신의 보신에 열중하느라 분노를 속으로 감추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라는 높은 신분의 지위에 있던 광 판사는 공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의로운 의인들만이 가능한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빈소를 찾아 영전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슬 한 잔을 올렸습니다. 평소 애주가이던 그의 영전에 마지막 술 한 잔을 올리며 곡(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족들과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옹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광 변호사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의 사업입니다. 막내딸은 변호사이고 그의 부군은 의사입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는 ‘하느님은 옳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원통한 일도 많지만, 역시 ‘하느님은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폭도들이라고 그렇게 탄압하던 전두환 일당은, 오랫동안 무자비한 독재 권력을 누리며 모든 국민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폭도입니다. 이제 그들 폭도들은 내란 수괴가 되고 학살자들이 되어 하늘의 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무리들이야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받기 마련이지만, 분노를 용기로 실천한 의인은 끝내 하늘의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준을 변호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꿈꾸는 2040



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대규모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선거는 아니어서 광주·전남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정을 위한 사임으로 치러지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선거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 당헌상을 여름쯤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민의 선택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를 바라보는 타 지역의 시선이 좁지만은 않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정국과 부동산 문제로 신년 초 국정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전국적으로 60% 상당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오히려 긍정 평가가 70% 가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과거 대선 때마다 나왔던 90% 상당의 물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광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자칫 탄핵 정국에서 어지러울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촛불 민심을 동력으로 출범한 현 정

신축년 호남 정치를 위한 제언

부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승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난국을 돌파하는 등 현 정권의 모습은 광주가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승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광주가 정치의 변방에서 ‘고립된 섬’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약 본격적인 정권 심판론이 대두된다면 강한 여론 정서가 형성된 이 지역의 입장과 책임을 묻는 사람이 늘 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국정 핵심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에 이 지역 인재 등용과 목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국장 등 검찰의 핵심 요직을 호남 출신들이 독점했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정작 검찰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할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는 이견리 전 검사장과 소병철 의원 등이 지역 출신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 청와대 개편에서도 새로운 지역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작년 초 부동의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자칫 지역 정치를 짊어질 구심점의 상실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간 실시될 민주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고민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친문 표심이 절대적인 현재 구조에서 이 지역 출신 인사가 당 대표에 선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지역 출신 인사들의 당권·대권 도전과는 별개로 광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당 대표 주자와 대권 후보자들에게 광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확답을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이 지역의 가치를 반영한 개헌안을 만들어 각 주자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침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예곡 처벌 법과 진상 규명 법 등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광주가 제안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포섭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그랑드 마르슈’ (대행진)라는 정책 설문 조사로 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만 명의 프랑스 시민들을 찾아가 개혁 과제를 심층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혁의 원동력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광주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광주의 목소리를 정립해야 한다.

광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면 단연 이 지역의 ‘묻지마 지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에 기반을 둔 정당을 어떻게 찍느냐는 항변에서 이제는 벗어나 광주가 지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가치를 수호할 세력이 있다면, 광주는 언제든지 특유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를 바란다.

회색에서 벗어나 ‘녹색도시’ 광주로

가되었거나 추진되던 사업들에서 비롯되고 있다. 처음 우리 시에서 대규모 고층·고밀의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모두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주택 관련 도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엄청난 도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울러 20년간 시행되어 온 기존 ‘상업지역 용도 목적제’를 폐지하고,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상업지역 주거 복합 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했다. 무등산을 볼 수 있는 광주다운 스카이라인과 주거의 쾌적성,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를 비롯하여 타 광역시에서도 광주의 이러한 선례를 이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인 250% 이하로 조정하고, 용적률 250% 초과분에 대하여는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 등으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다. 준주거·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의 고층·고밀화로 인한 일조·조망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일색의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상업지역 내 입지 가능한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생활 숙박 시설 등은 당초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숙

박시설 등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거 용도로 전용되어 입주민의 일조·조망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향후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도 400%로 조정하여 도심 내 고층·고밀화된 공동주택 문제를 해소코자 한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의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주택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생태 여건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 훼손 및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심 내 우수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춘 표고 100m 이상 지역에서 대규모 환경 훼손 및 급속한 시가지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도심 내 양호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구축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하였다. 이는 광주시 도시·건축 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이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의 기초로서 도시·건축 행정 전반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 선언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종 법정·비법정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매뉴얼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광주가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녹색 도시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社說

사과 한마디 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영의 뜻을 표한 곳은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우리공화당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꺼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진보층은 떠나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어찌 됐든 현 시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이 대표가 말한 국민통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 대표의 조급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견 아니다. 지금은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사면론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등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의당은 물론 보수야당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

했다. 김종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영의 뜻을 표한 곳은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우리공화당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꺼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진보층은 떠나고 마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어찌 됐든 현 시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이 대표가 말한 국민통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 대표의 조급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견 아니다. 지금은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다.

집단 감염 폭증…모임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새해 들어 연휴 기간 동안 광주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탓인데, 체육 동호회 등 기존 감염원 관련 환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족 간 전파 역시 급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일 13명, 2일 26명, 3일 68명(오후 6시 기준) 등 사흘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환자가 폭증한 것은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 그제부터 이들 동안 입원 환자 53명과 직원 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 간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제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가족 간 전파 사례는 40명에 이른다. 가파른 확산세 속에 이젠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에서도 새해 들어 순천 13명, 해남 4명, 광양 3명, 진도 1명 등 2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가 쏟아질 경우 지역 의료 체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검사·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역민들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안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가우도’ (鵝牛島)라는 섬이 있다. 섬 지형이 소 멍에(鵠)를 닮았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읍내에 있는 보은산은 소의 머리에 해당된다. 해안 경관이 아름답고 강진민과 바다에 떠 있는 무인도를 조망할 수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섬은 편백나무 군락지를 비롯해 후박나무나 굴살나무도 많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는 ‘소똥령’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우시

장으로 팔려 가던 소들이 고개 인근에서 똥을 많이 누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

흰소

장 많았고 영암(18개), 장성(17개) 순이었다. 그중 영암의 ‘독천’ (獨川)은 송아지 시장 주변에 하천이 있어 송아지 ‘독’ (獨)자와 내 ‘천’ (川) 자를 쓴 경우다.

예로부터 소는 근면·풍요·한신을 상징했다.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상금’ 역할까지 담당했다. 그만큼 집안과 마을의 번창은 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나주시의 ‘구축’ (九丘) 마을에는 아홉 마리 소로 부를 일컫는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

올해는 육십간지 중 38번째인 ‘흰 소’의 해

다. ‘천천히 걸어도 황소 밭’이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도 황소 걸음으로 두텁두텁 성실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 비록 코로나로 일상이 닫혀 있지만, 소 밭들이 씨앗을 상징하듯 언젠고 희망은 움트기 마련이니까. 오늘이 새해 4일째, 계획을 세운 일이 있다면 ‘쇠뿔’에 단단히 뼈라’는 말을 떠올렸으면 한다. 그리고 명심하자. 그 계획을 주저없이 많은 204개(28%)가 있었다. 뒤를 이어 경남 96개, 경북 94개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우이도(牛耳島) 등 25개로 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기 고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최근 들어 고밀·고층 아파트 건축과 이에 따른 주거 문화, 도시공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2019년 기준 약 107%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66%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주요 도심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경제성에 치우친 양적 개발과 고층·고밀화 현상으로 주거 환경의 열악화, 공동체 의식 파괴, 수요자의 개성 및 생활 방식의 다양성 결여, 교통·조망·일조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상업지역에는 40층 이상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되면서 무등산이 고층의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 도시 공간 구조 설계상 상업·업무·문화·예술 등을 위한 상업지역이 대규모 고밀도 주거단지화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난이 심화되는 등 도시 기능상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제는 대부분 2018년 이전에 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